

XII

알제리 식민지 개발과 프랑스의 이주 정책 (1830~1889) -프랑스 만들기와 이주-

문 중 현
세종대학교

머리말

오늘날 흔히 받아들여지는 이주는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옛 식민지 국가에서 옛 식민모국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인구이동을 의미하지만 19세기 제국주의와 대이주의 시대에 유럽과 알제리 사이에서는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지중해 북안 유럽에서 지중해 남안 북아프리카로의 이주는 1830년 프랑스가 알제리를 침략한 이래 국가적 차원의 식민지 개발 사업의 일부로 꾸준히 추진되었다. 식민이란 식민모국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 자국민을 정착시킬 목적으로 개발하는 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식민지 역사는 한편으로 정착민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식민지 알제리의 역사가 오랫동안 프랑스 현대사의 중요 연구 분야로 자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지중해 지역의 인구이동 대부분을 차지한 유럽계 정착민^{colon européen}의¹⁾ 역사는 오랫동안 소홀히 다루어 졌다.²⁾ 1962년 알제리 독립과 함께 프랑스 제국이 급속하게 해체되면서 피에 누아르^{Pied-Noir}로 불린 약 100만 명의 유럽계 이주자는 갑작스럽게 송환^{rapatriements}될 수밖에 없었고

자신들의 유산과 흔적을 알제리에 남길 수 없었다. 프랑스로의 송환 혹은 귀환이라는 용어는 그들의 불안정한 정체성을 보여준다. 실제 그들에게 송환이란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대에 걸쳐 살고 조상이 묻혀 있던 고향에서 뿌리 뽑혀 유럽으로 이탈하는 것에 불과했다. 식민지 시절부터 유럽 정착민을 향한 관심은 주로 인구 통계학에 머물러 있었는데³⁾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알제리에 정착한 유럽 공동체의 이민과 정착, 생활과 문화가 연구되기 시작했다.

프랑스 정부가 알제리 전쟁 동안 알제리 독립을 부정하는 목적으로 프랑스인의 알제리 *Algérie française* 용어를 사용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알제리를 식민지로 규정하는데 주저했다. 하지만 알제리 독립 당시 전체 인구 900만 명 중 약 10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유럽계 소수 민족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은 알제리가 프랑스의 정착식민지 *colonies de peuplement*였음을 보여준다.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이 원주민을 강제로 이주시켜 보호구역에 가둔 식민지와는 다르지만, 19세기에는 유럽계 정착민의 이익을 위해 원주민들이 소유하고 경작하던 지역을 축소, 약탈하는 정책이 시행된 공간이었다.⁴⁾

다소 즉흥적이었다고 평가받는 샤를 10세의 군사적 침략을 이어받은 7월 왕정(1830~1848)은 원활한 알제리 통치와 몰수한 토지에 대한 통제권을 지속시키는 방법으로 이주민의 정착을 추진했다. 정착촌 건설을 통한 식민화의 목표는 프랑스 문명을 이식하고 아랍인들의 후진적이고 정체된 관습을 대체하는 것이었다. 1834년 7월 왕령 *ordonnances*에 따라 알제리는 ‘프랑스 점령지 *les possession françaises*’가 되어 전쟁부가 관할하고 총독이 통치하는 지역 *une colonie militaire*이었다. 이후 식민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1848년 7월 왕정을 타도한 제2공화국은 알제 *Alger*, 오랑 *Oran*, 콩스탄틴 *Constantine*에 지위 *départements*를 부여해 프랑스의 일부, 즉 ‘단일한 프랑스의 영토’로 통합했다.⁵⁾ 행정적 통합에 발맞추어 이주 장려정책도 실행되기 시작했다. 한데, 1830년대와 1840년대 알제리에 첫 번째로 도착한 식민지 개척자는 프랑스인들이었지만 스페인, 이탈리아, 몰타, 그리스 등 지중해 지역에서 온 이민

자들이 빠르게 늘어나 프랑스 출신 정착민 수를 넘어섰다. 1850년에는 알제리에 거주하는 483,500명의 유럽 식민지 개척자 중 절반 이상이 프랑스 이외의 국가 출신이었다.

이 논문은 샤를 10세의 침공 이후 실행된 이주정책에서부터 속지주의 원칙에 따른 '1889년 국적법' 제정으로 유럽계 정주민에게 국적을 부여해 안정적 정착민 인구가 형성되기까지 메트로폴리스 정부와 식민지 정부에 추진된 이주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알제리 식민화가 과연 프랑스인에 의한 식민화였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알제리 식민화 과정의 초기 역사에서 유럽인 이주는 지중해 건너편에 식민 정착지를 개발하고 프랑스로 만드는 과정의 필수 요소였다. 프랑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전제로 고안된 개발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고 구체적 전략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알제리가 메트로폴리스 잉여인구 조절을 위한 적절한 정착 식민지가 될 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공급해 개발하면 식민지와 식민모국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추진되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프랑스계 정주민 사회 건설은 계획한 데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실패에 가까웠다. 마그레브 지역 여름의 고온에 익숙하지 않은 정착민들은 기후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제공된 정착촌도 간이 수용소에 가까웠을 정도로 생활환경은 열악했다. 이주민을 모집하면서 프랑스 정부가 약속한 희망을 알제리에서 찾기는 쉽지 않았다.

다음으로 알제리 무슬림 원주민 인구를 압도하는 정착식민지를 건설을 위해 프랑스가 추진한 가족 단위의 이주, 여성 이주를 통한 가족 형성, 이주민을 통한 농업개발 등의 계획은 준비 부족으로 수많은 난관에 부딪혀 미미한 성과만 낳았고, 비프랑스계 유럽인 이주를 통제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음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메트로폴리스 정부와 식민지 정부 모두 의욕적으로 추진한 여성 이주정책 수립의 목적과 결과를 살펴볼 것이다. 식민지 정착민 사회의 불균형한 성비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인구성장을 위해 추진된 여성 이주는 정책적 차원에서 추진되었지만, 결과는 부분

적으로 성공했을 뿐 실패에 가까웠다고 평가받는다. 알제리 인구증가는 프랑스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 이주해온 여성들이 ‘1889년 국적법’을 통해 프랑스인이 되면서 안정적 궤도에 진입하였다. 프랑스 국적에 대한 개방성은 인종, 민족적으로 구분되는 여성들에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해 문화적, 사회적 ‘유럽 여성’으로 빠르게 만들었다.⁶⁾

알제리 유럽계 정착민은 자유롭게 이주(migrations libres)한 사람들과 프랑스 정부의 보조와 지원을 받은 이주자(migrations assistés)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두 가지 이주의 역사는 19세기 유럽 대이주(grande migration euroéenne)와 프랑스 제국주의가 북아프리카에 남긴 역사의 일부이다.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던 시절부터 알제리는 지중해 전역에서 이주민을 끌어들이는 공간이었다. 군사적 정복 동안 유럽계 인구는 식민지 알제리에서 소수에 불과했지만, 영토적, 지리적 약탈을 동반한 식민화가 가속되면서 유럽계 이주자의 수가 증가하고 지리적 경계 또한 확장됐다.

이주 장려와 ‘나쁜 이주자’ 통제 정책

1830년 프랑스의 침공으로 알제리를 식민화한 이래 프랑스 정부는 꾸준히 이주장려 정책을 추진하였다. 프랑스 이주, 인종, 식민사 전문가인 리오주(Claude Liauzu)는 그의 저서 『서지중해 이민사(Histoire des migrations en Méditerranée occidentale)』에서 프랑스가 추진한 이주 정책은 상대적으로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농촌 지역까지 포함하는 알제리 전역을 식민화하려는 꾸준한 정책 추진은 목표와는 달리 스페인, 이탈리아의 해안지역, 몰타에서 온 이주민 유입이 꾸준히 증가했다. 프랑스 식민정부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1866년 217,099명의 유럽계 이주민 중 프랑스인은 56%에 머물렀고 1872년에는 245,117명 중 53%가 프랑스인, 60%가 도시에 거주하였다. 프랑스 정부의 노력에도 다수의 유럽계 외국인(Euro-étrangers)이 지중해 연안지대의 도시인

알제, 본Bône, 필립빌Philippeville)에 정착했다.⁷⁾

정주민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며 늘어만 간 유럽계 정주민의 수는 알제리 식민화 정책을 출발부터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이주에 대한 조직적 통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수의 혼성적인 유럽계 정주민 사회의 인구구성에 관해 북아프리카의 이국적인 정취를 찾아 떠난 여행객들은 식민지 도시의 개방성과 코스모폴리탄 성격에 찬사를 보냈지만, 식민지 정부는 경제적, 안보적 위협으로 여겼다. 1831년 3월 28일, 알제리 총독으로 임명된 피에르 베르테젠Pierre Berthezène 장군은 “스페인, 이탈리아, 특히 몰타가 이 해안으로 토해낸 모든 부랑자”라고 유럽계 이주민을 바라볼 만큼 이방인의 이주를 환영하지 않았다. 특히, 당시의 인종주의적 종족 구분에 따르면 남부 유럽과 지중해 섬에서 온 이민자는 전혀 프랑스인과 같은 유럽인이 아니었다. 1834년 아프리카 위원회Commission d'Afrique는 독일과 스위스 출신의 이주자에 대해서는 “질서와 노동의 습속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선호한다”라고 보고했다.⁸⁾ 실제로 프랑스 정부는 벨기에, 스위스 독일 등 북유럽 국가에서 알제리로의 이주민 모집 사업에 적극적이었다. 이에 반해, 남유럽 이주자는 식민지 사회에서 일어나는 도덕적, 사회적 무질서의 원인으로 비난받았고, 프랑스 정부, 식민지 정부 모두 그들의 이주를 꺼렸다. 식민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프랑스계 이주자의 수와 부족한 노동력으로 인해 스페인, 이탈리아, 몰타 등에서 몰려드는 이주의 물결은 거스를 수 없는 현상이었다. 당시 프랑스인은 알제리에 대해 낭만적인 오리엔탈리즘을 불러일으키는 환상의 땅이면서도, 개발과 정착에 가혹한 불모지라는 뒤섞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식민지 의료정책 담당자들은 어쩔 수 없이 늘어만 가는 남유럽 출신 정착민을 알제리 기후에 육체적으로 더 적합한 이주민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 19세기 말에 이르러 일부 식민주의자들은 북유럽인과의 ‘융합fusion’하고, 식민지 생활에 잘 적응하는 새롭고 더 활력 있는 ‘라틴 인종’과의 사이에서 정착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⁹⁾

식민화 초기 이주정책의 목표는 ‘나쁜 정착민(mauvais colons)’이 알제리 땅에 발 디디는 것을 억제하는 데 있었다. 초기 정착민들의 사회적 특징은 알제리에 가족 단위의 농민을 정착시키려는 식민지 정부의 의지를 좌절시켰다. 대부분의 개척 사회와 마찬가지로 알제리의 식민지화 초기 정주민의 대부분 남성이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1830년대에는 유럽인 여성 한 명당 유럽인 남성이 두 명 이상이었는데, 이러한 정착민의 성비 불균형은 이후 서서히 감소하여 1870년에 이르러서야 거의 대등한 남녀 성비에 도달했다.¹⁰⁾

식민지 정부는 가족이 중심이 되는 식민지 사회의 문명화 사명과 더불어 ‘도덕화(moralisatrice)’를 중요한 식민화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유럽에서 성매매업에 종사했던 여성이 알제리로 유입되는 것을 크게 우려했다. 또한, 유럽 이주민 인구가 보이는 젊은 세대의 증가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자녀 수가 인구의 정주민 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활기를 나타내는 것이었지만, 메트로폴리스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미혼모의 출산율은 식민사회의 성적 타락을 보여주는 통계 지표로 이해되었다. 식민지 정부는 미혼모의 높은 출산율을 도덕적 타락으로 간주해 식민지 사회가 불안해 지고 있다고 이해했다.

그리고 초기 이민자들의 직업적 성격 역시 식민지 정부의 기대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식민지 정부는 언제나 농촌에서의 가족 단위 정착민을 선호했고, 파리 정부는 알제리 토양을 비옥하게 할 수 있는 숙련된 농부들을 유치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럽 이주민은 육체적, 도덕적, 경제적으로 알제리 식민지 개발에 적합하지 않은 도시의 가난한 농민, 미숙련 노동자, 장인 등이었다. 이들의 사회적 배경과 개인적 능력은 농촌 생활과 농업에 적합하지 않았다. 알제리 농촌 개발에 필요한 노동력은 고향과 알제리 사이 이동이 쉬웠던 스페인 출신 계절 농업 노동자들이 담당했다.

정착민 중 다수를 구성하는 인구는 노동자 계급 출신이었다. 식민지 정부 관료들은 노동계급 출신 이민자들이 국가에서 제공한 지원금을 바탕으로 정착한 이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빈약한 저축을 빠르게 소진해 더욱더 국가 지원에 의존하게 될 것을 걱정했다. 그리고 가난한 노동자들이

술집이나 '부도덕한' 업소를 출입할지도 모른다고 염려했다. 때로는 이주민 중 일부를 부동산이나 각종 투기적 사업을 통해 돈을 벌려는 '모험가'와 '투기꾼'으로 비난했다. 알제리 땅에 영구적으로 정착하지 않는 이주민에 대한 경계심이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다. 1846년 알제리 유럽계 정착민 109,400명 중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16,422명에 지나지 않았고 담뱃가게, 카페, 식료품점 등의 도시 중소매매업에는 1,500명 일했다. 대부분의 이주민 노동자의 이직률이 높아 매우 유동적인 집단이었기 때문에 식민지 사회에 제대로 뿌리 내렸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¹¹⁾

역설적이게도 노동계급 출신 이주자 증가는 식민 당국이 시행한 정책의 자연스러운 효과였다. 당시 알제리에서 우선적 과제는 압-델-카데르-Abd-el-Kader와의 전쟁이었고, 무엇보다 전쟁 수행을 위한 물자 운반에 필요한 대규모 인프라 건설 등의 공공사업에 노동자와 장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¹²⁾

1838년 전쟁부 장관이 알제리로 이주자를 유도하기 위해 국영 선박에 대한 무료 탑승권을 제공했을 때, 탑승권을 얻기 위한 기준은 식민지 정부보다는 식민모국의 정책에 더 부합하는 것이었다. 식민주의 이념에는 농민의 이주가 적합한 것이었지만, 현실적인 노동력 수요가 반영됐다. 이주자 선별기준은 민간 및 군사 건설 현장에 적합한 기술을 지녔는지 가늠하는 것이었다. 프랑스 대도시의 시장들은 노동자들이 원하는 분야에서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고 광고하면서 이주 지원자를 모집했다.

프랑스 정부는 공식적인 식민지화 계획에 따라 이주 지원자들에게 토지 양도를 제공했다. 1830년대와 1840년대에 364,000헥타르가 넘는 농지가 유럽인 정착을 위해 원주민으로부터 압수된 후 분배되었다. 그런데도 계속된 정복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농촌 지역 치안의 불안전성, 프랑스 통치의 불확실성, 도시에 집중된 고임금 일자리로 인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유럽 인만이 농촌에 정착했다.¹³⁾

한편, 식민지 정부는 자유 이주는 적절히 통제하고 있었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곤층, 체납자, 부랑민 등 입국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이주

통제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1830년 11월 15일’과 ‘1831년 4월 25일’ 두 차례에 걸친 법령은 알제리에 도착한 이민자들에게 여권을 제시해야만 거주 허가를 받도록 요구했다. 지중해 남부의 항구와 알제를 잇는 여객선에서 프랑스 당국이 승인한 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는 것은 금지되었다. 하지만 북아프리카 여러 국가와 접한 알제리의 긴 국경, 만연한 해안 지역의 밀입국 관행, 비효율적인 통제로 인해 불법 이민을 막는 것은 불가능했다. 더불어 프랑스와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당국이 입국이 달갑지 않은 사람^{indésirable}을 막기 위해 고안된 신원 증명서 위조가 빈번하게 발생해 이주자 통제는 더욱더 어려웠다. 프랑스 대도시에서 내국 여권이 더는 사용되지 않게 된 1862년에 이르러서야 알제리에서도 여권 요건은 폐지됐다.

1848년 이후 원주민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군사 작전이 사하라와 카빌리^{Kabylie}로 옮겨가고 토지의 수용^{expropriation}과 매각이 가속화되면서 식민지화에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은 분명 이주와 정착을 통한 정주민 사회의 인구증가를 낳았다. 1848년 이후 농업 식민지에는 수천 명의 새로운 정착민이 몰려들었고, 1850년대에는 군사적 점령이 완료된 지역에 설치된 ‘숙영지^{cantonnement}’를 통해 광활한 토지가 확보되었다. 제2제국⁽¹⁸⁵²⁻¹⁸⁷⁰⁾은 철도 및 기타 인프라 건설을 위해 계약을 맺은 민간 식민지 회사에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자유 통행권을 확대했다. 계약의 대가로 기업들은 막대한 토지를 양도받았고, 그 토지에 새롭게 인구를 수용해야 했다. 새로운 경제 구조를 창출하기 위한 개발 정책은 원주민을 이외의 충분한 노동력이 공급되어야 실현 가능했다. 이제 프랑스는 좋은 조건으로 유럽계 이주민을 유인하고, 장려하는 방식으로 이주정책을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¹⁴⁾

그 결과 유럽 인구는 두 배로 증가했고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유럽인의 비율은 35%에서 50%로 증가했다. 이후 식민지 알제리에서 출생한 인구가 성장해 유럽계 정착민들은 빠르게 ‘크레올화^{créoliser}’되었다. 출생률이 사망률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1856년에서 1872년 사이에 알제리에서 태어난 유럽인의 비율이 두 배로 증가했다. 유럽인들은 여전히 알제, 오랑 등

대도시와 그 주변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프랑스 정부가 목표로 하는 이상적 정착식민지 모습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1870년 제3공화국의 출현 이후 일어난 알제리 원주민 봉기는 정착촌의 급격하고도 엄청난 확장에 따른 무슬림 전통 사회에 대한 파괴적인 영향을 반영한다.¹⁵⁾

제3공화정이 수립된 후 시민권에 대한 법률적 정비가 완료되면서 식민지 이주계획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이주를 통해 프랑스인을 늘려야 한다는 식민지 개발의 당위가 현실에 적절히 구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화국 정부는 영구적 식민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 조건으로 프랑스 농부를 이주시켜 농업을 발전시키고, 무슬림 원주민보다 더 많은 프랑스인이 알제리에 거주하게 해 수적으로 그들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식민지로 만들기^{coloniser} 위해서는 프랑스인을 이주시키는 것^{peupler}과 더불어 유럽계 정주민을 프랑스인으로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였다.

제3공화국 이전 알제리에 대한 자본 투자와 이주정책은 대체로 성공적이지 못했다. 1848 혁명 이후 국가가 주도해 이주를 실행했지만, 그 효과는 대도시의 인구를 일시적으로 증가시킬 뿐 식민지와 식민 모국을 연결하는 산업 발달과 상품 교역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해서 민간영역의 경제 발전은 더디게 이루어졌다. 알제리는 그다지 충분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투자 대상은 아니었다.

1871년 엘-모크라니^{El-Mokrani} 반란은 프랑스의 식민화, 즉 토지 약탈에 좋은 구실을 제공하였다. 반란을 일으킨 부족에게는 무거운 벌금과 함께 약 450,000헥타르의 토지를 몰수하였고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시켰는데, 몰수된 토지를 분배하면서 수많은 가족이민을 통한 정착민 사회가 수립될 수 있었다. 1871년~1895년 사이 약 5,655가구가 알제리 농촌에 정착하였다. 1871년 '6월 21일 법안'이 제정되면서 알자스 로랭^{Alsatiens-Lorrains} 주민들이 이주하였고, 1889년 아베롱^{Aveyron}의 광부 등 13개 이상의 지역에서 대규모 이주계획이 식민지 정부에 의해 조직되었다.

제3공화국의 첫 10년은 알제리를 향한 '이주의 황금기'였고, 두 번째는

10년은 이주자의 정착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간이었다. 19세기 말에 알제리로 이주한 프랑스인의 대다수는 코르시카^{Corse}, 피레네조리앙탈^{Pyrénées-Orientales}, 오트잘프^{Hautes-Alpes}로 대표되는 지중해 지역 출신이었다. 알제리에 한 번도 발을 디딘 적이 없는 ‘식민지 개척 자원자’들이 이주한 데는 프랑스 정부의 적극적인 캠페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공짜 땅에 대한 약속은 가난한 농민과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동기를 제공하였는데, 식민지 이주에 대한 정보와 이주 신청은 도의 담당 부서에서 요청할 수 있었다.

1870년대부터 알제리 식민정부^{Gouvernement Général de l'Algérie: GGA}는 파리와 지역 언론을 통해 ‘식민지 이주민 구함^{appels aux colons}’ 캠페인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프랑스 정부는 알제리 이주에 대한 소책자, 안내서, 포스터 등을 제작해 지원했다. 개별 이주희망 집단을 위한 맞춤형 캠페인도 전개되었는데, 포도나무 뿌리 진디병^{phylloxéra}로 인해 크게 피해를 본 포도 재배지역의 농민을 위한 이주 안내도 실행되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주요 이민 국가인 미국이나 아르헨티나가 주도한 이주 캠페인에 비하면 알제리를 향한 이주는 큰 효과를 달성하진 못했다. 이주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불명확해 지원자의 불안감을 상쇄시킬 수 없었기에 프랑스인에게 알제리는 매력적인 이주지가 아니었다. 알제리 출신 역사가 야코노^{Xavier Yacono}는 “이주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었다. 국가는 농부, 노동자, 상인으로 건너온 이주자의 정착을 후원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다.¹⁶⁾ 1880~1890년 알제리 농촌 및 해안 지역의 식민지화를 위한 많은 정부 계획이 추진되었지만, 프랑스인의 상당수가 알제리 이주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탈리아인, 스페인인에 비해 적은 수가 알제리에 정착했다.

프랑스 여성이주 계획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3공화정 이전 알제리 이주 장려정책이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식민지 정부를 괴롭힌 또 다른 문제는 정착민의 높은 성비 불균등 현상이었다.¹⁷⁾ 미혼 독신 남성 이주자가 정착민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은 식민지 알제리에서 안정적으로 인구증가를 가져오고, 인구를 프랑스화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간주됐다.¹⁸⁾ 이주 여성에게 인종적으로 우수한 아동을 낳고 길러 식민지의 번영과 민족을 재생(régénérer)시키는 임무가 부여된 것이다.

이주의 역사에 있어 여성은 이주 목적지와 관계없이 항상 남성보다 이주 가능성이 적었다. 교통수단의 열악함, 정보의 부족, 전통, 관습의 걸림돌로 인해 19세기 이주 현상 속에서 여성은 낯선 이주의 주체였다. 당시 여성에게 이주를 실행한다는 것은 가족, 고향, 익숙한 환경과 결별하고 두려운 미지의 세계와 마주하는 운명적 결단이었기 때문에 큰 각오가 필요했다. 이주는 여성에게 전통과 관습을 위반하고, 자신의 삶에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시키하고자 하는 용기, 가정과 가족을 떠나는 도전을 의미했다.

여성 이주는 대부분 가족과 함께 떠나거나 이주 목적지에 먼저 정착한 친척, 지인, 친구와 합류하는 방식이었다. 출신 국가와 이주지 사이의 거리도 영향을 미쳤다. 익숙한 환경, 가족과 분리되어 떠나는 이주는 비용이 부담되지 않는 신속한 귀환이 보장된다면 더 쉽게 실행될 수 있었다. 지중해 주변 유럽인들에게 알제리는 가까운 거리, 안전한 교통수단, 적은 이주비용, 쉬운 귀환의 가능성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최적의 이주지였다. 그런데도 알제리는 유럽 여성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은 이주희망 지역은 아니었다. 남유럽 사람들에게 알제리는 여성을 납치해 노예로 팔고 때로는 하렘에 가두는 바바리 해적의 거점으로 알려져 왔고, 19세기 내내 프랑스군의 정복에도 불구하고 치안이 매우 불안정하고 유럽인을 환대하지 않는 야만적인 무슬림 원주민의 땅이었다.

1830년 7월 알제^{Alger}가 프랑스군에 의해 함락된 이후 알제리 전역을 프랑스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원주민의 반란과 이를 토벌하는 식민지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1857년 카빌리^{Kabylie}에서 랑동 장군^{général Randon}이 이끈 군사 작전 이후 사하라 사막을 제외하고는 정복 작전은 완전히 종료되었지만, 안정적 통치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1871년의 대규모 반란과 1876~1879년 오레스^{Aurès} 지역 반란은 혼란스러운 식민화 초기를 잘 보여주는 사건인데, 알제리에 대규모 군대가 지속해서 주둔할 필요성은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격렬한 원주민 반란이 발생할 때마다 알제리로 이주한 여성들은 안전의 위협받았고 때로는 생사를 넘나들었다.

식민화 초기 남성 1,000명당 여성은 1833년 336명, 1842년 389명, 1842년 389명에 불과했고 그 수도 너무나 미미하였다.¹⁹⁾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 정부는 여성의 식민지 이주를 알제리 식민화 프로젝트에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할 수밖에 없었다. 인구를 안정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여성이 없는 성공적인 식민화는 실현될 수도 지속할 수도 없고, 결국에는 실패할 것으로 판단했다.

1840년 이후 알제리 정복에 군사적으로 큰 역할을 한 뷔조^{Thomas-Robert Bugeaud} 장군은 칼뿐만 아니라 쟁기를 통해 식민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내 기대와 달리 우리 병사들이 여성을 찾지 못하면, 내 시스템은 기초에서부터 훼손될 것이며, 포기해야 할 것이다”라고 여성 정착민의 필요성을 선언한 바 있다.

알제리에서와 마찬가지로 식민모국 프랑스에서도 동일한 주장이 나타났다. 전쟁부 소속 알제리 담당 부서는 알제리 총독에게 시민 식민지화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하루를 받을 개간하거나 경작하는 데 힘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갈 때 음식을 준비해 기다리는 동반자를 찾아야 합니다 [...] 그가 집에서 가사노동, 위로 또는 기분전환, 사회적 소속감 등 적절한 만족감을 찾지 못하면 그는 다른 곳에서 이러한 것들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노동, 청결, 안녕, 도덕, 등 모든 것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²⁰⁾

이 보고서가 강조하고 있는 식민지 이주 여성에게 부여된 역할은 명확하다. 원주민과의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가정 및 공적 도덕의 수호자로서 배우자, 어머니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여성이 없는 식민지 개발은 실현되지 못할 꿈에 불과했다.

또한, 알제리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한 의사 카브롤(Hyacinthe Cabrol)은 1863년에 출간된 『알제리의 위생과 식민지화에 대한 보고서』(De l'Algérie sous le rapport de l'hygiène et de la colonisation)에서 다음과 같이 식민지에서의 여성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남자가 매일 자기 일을 계속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용기와 힘을 끌어내는 것은 결혼이라는 성소이며, 가족은 그의 힘든 삶에 끊임없는 목표이기에 [가족이] 없다면 낙담할 수밖에 없다. 여성 없이는 정착민도, 가족 없이는 식민화도 있을 수 없다”²¹⁾

식민지 행정을 담당한 고위 장군, 관료들은 공통으로 민간인 또는 전직 군인 남성이 가정을 일구지 않은 채 알제리로 파견되어 정착하는 것에 대해 공공연히 우려를 표명하였다. 결혼한 남성보다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미혼 남성 중심의 이주민 구성은 식민화의 위협 요소이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사실, 유럽 식민지 개척자들이 식민지에서 여성 동반자를 찾는 경우는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에서는 흔치 않게 나타난다. 하지만 알제리에서는 원주민 여성과 가족관계를 이루는 것에 많은 장애물이 있었다. 알제리 무슬

림 여성들은 12세부터 가정 이외의 공간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과 접촉할 기회가 적었을 뿐더러 대가족 문화로 말미암아 여성의 가족으로부터 인정받는 혼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처음부터 어려웠다.²²⁾ 더욱이 프랑스군 지휘관들은 알제리 원주민과의 관계의 악화를 피하려 했기 때문에 종교와 관습을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병사들이 무슬림 여성과 접촉을 권장하지 않았다. 이러한 초기 식민지 개척 상황 때문에 프랑스인 여성 이주 확대는 식민지 발전이라기보다 식민지 생존의 필요조건이었다.

뷔조의 여성 이주를 통한 정착민 사회 건설 계획

원주민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공을 세운 뷔조는 군사적 식민화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군인들이 프랑스로 귀국하지 않고 알제리에 남아,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식민지 군단에 복무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식민화 정책이라 생각했다. 1842년에서 1847년 사이에 그는 자신의 원대한 군사적 식민화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프랑스 하원에 제출했지만 모두 승인되지 않았다. 뷔조는 하원의 승인을 얻고자 1844년에서 1847년 사이에 사헬^{Sahel}과 미티자^{Mitidja} 지역에 세 개의 '군사 식민지^{colonies militaire}'를 건설하여 자신의 계획을 실질적으로 입증하려 했는데, 가장 많이 알려진 정착지는 알제에서 35km 떨어진 해안 도시 푸카^{Fouka}이다.

뷔조는 자신이 수립한 식민화 계획, 즉 군사적 식민화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남성 군인들에게 여성 동반자를 찾아주어야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알제리에 여성 구호소와 보육원 설치를 검토하기도 했다.

“구호소에는 타락하지 않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그곳에 가게 된 여성들이지만, 그녀들은 여전히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좋은 가족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 식민지가 성공하면 사회에 짐이 되지만 하는 여성과 아이들을 이곳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²³⁾

1847년 하원에서 군사 식민화에 필요한 예산을 승인받지 못했지만, 구호소와 보육원을 통한 군인 정착민 가족 만들기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고, 여성 이주에 대해서는 언제나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군인 정착민 남성을 따를 충분한 수의 여성이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나는 이 걱정을 갖지 않습니다. 10헥타르의 땅을 가진 남성과 결혼을 거부하는 가난한 시골 여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모험심이 강합니다. 결혼하는 데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 모범사례가 나타나면 장애물은 사라지고, 원하는 만큼의 여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들은 서로를 끌고 갈 것입니다.”²⁴⁾

군사 식민화 계획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받는 문제가 더 절실했기 때문에 뷔조가 여성 이주계획을 우선적으로 실행하려 했지는 불분명하다. 한데, 1842년 파리 언론에서 ‘공개 결혼(mariages au tambour)’라고 묘사한 중매결혼을 살펴보면 여성 이주계획은 포기되지 않았고 여전히 그의 주된 관심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승인과 지원 예산을 기다리지 않고 뷔조는 12월에 푸카 군사 식민지를 추진했다. 그는 프랑스 정부에 자신의 실험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나머지 결혼할 여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정을 이루지 못해 탈영하는 군인 정착민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의 해결책을 빨리 찾아야 했다.

식민지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고자 했던 뷔조는 “아랍인들은 여자들을 우리의 눈길에서 피하게 하려고 숨겨 버렸다”라며 식민지 젠더, 인종 연구에서 자주 인용되는 말을 남겼을 만큼 혼혈을 낳는 인종 간 결혼에 매우

부정적이었다. 그는 식민자와 피식민자,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인종적, 혈통적 순수한 경계가 흐려지고, 프랑스 혈통에 근거한 시민권이 도전받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알제리 무슬림 여성들과의 결혼은 식민화 계획에서 완전히 배제했다. 무슬림은 동맹을 맺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대인은 종교적, 인종적 편견으로 원주민 여성과의 혼인은 기피되었다. 게다가 “우리 병사들에게 여성을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데 있어 외국인 비율을 높이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페인, 이탈리아 및 몰타 등 출신의 유럽계 여성과의 통혼도 꺼렸다.

군인, 농민, 노동자, 장인, 상점주인, 투기꾼 등으로 대표되는 정착민 다수의 미혼남성이 새로운 땅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식민화였다. 단, 원주민 유대인, 무슬림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지는 말아야 했기에 프랑스인 여성 이주가 절실했다.

1842년 7월, 뷔조는 퇴역 장군이었던 툴롱Toulon 시장에게 “보육원에서 자란 젊은이들 또는 정직한 장인과 농부 가정에서 고른 겸손하고 근면한 여성”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시장과 교분이 두터운 친구의 딸이 결혼할 여성 지원자를 찾는 일을 담당했는데, 그녀는 중매쟁이로 나서 툴롱의 부르주아 가정에서 하인으로 일하고 있는 여성 중 가톨릭 신자이며, 외국인이 아닌 프랑스 여성 신부 후보자를 찾아 만남을 주선했다. 중매결혼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해군 담당자는 20명의 병사를 데리고 왔는데, 툴롱 시의회는 뷔조의 끈질긴 요청에 따라 총 4,000프랑을 20명의 어린 소녀들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예비 신랑, 신부의 만남은 호텔에서 이루어졌다. “우리는 여성들이 배우자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라고 해군 담당자가 기록했는데, 여성들은 자신에게 맞는 남자를 선택했고, 서로를 알기 위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중매의 노력으로 17쌍의 결혼이 성사되고, 배우자를 찾지 못한 나머지 3명의 군인은 자신의 고향에서 아내를 찾는 것으로 시의회가 준비한 중매는 끝을 맺었다.²⁵⁾ 오로지 뷔조 개인의 노력만으로 실험적인 여성 이주 장려정책이 추진됐다.

하지만, 공적 보조금이 지원되는 중매결혼을 통한 여성이주는 다시는 추진되지 못했다. 이전부터 군사 식민지화 프로젝트에 호의적이지 않았던 전쟁부 장관 솔트^{Soult}는 툴롱에서 이루어진 결혼이 파리의 신문을 통해 부정적 여론을 불러일으키자 더는 허용하지 않고 지원을 거부했다.²⁶⁾ 장관은 ‘이미 준비된 가족들과 함께 식민지를 건설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한데, 당시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중매결혼이 매매혼에 지나지 않아 실패한 것은 아니었다. 1844년 푸카 식민지의 인구 조사에 따르면, 툴롱에서의 중매결혼으로 탄생한 가족 중 몇 가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가정에 자녀가 태어났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뿌리내렸다.

뷔조가 여성 이주를 위해 한창 노력 중이던, 1841년 몽펠리에 수도원 신부 쿠랄^{abbé Coural}은 수용된 여성들의 재활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마리-조셉^{Marie-Joseph} 수녀의 의지에 따라 설립된 ‘나사렛 은거^{Solitude de Nazareth}’라는 이름의 구호소는 늘어나는 운영비 지출로 재정적 문제를 겪고 있었다. 운영 보조금을 받기 위해 쿠랄 신부는 1842년 7월 프랑스의 여러 도지사 와 알제리 총독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구호 기관의 안내문을 보내었다.

쿠랄 신부가 처한 상황을 알게 된 뷔조는 ‘나사렛 은거’가 군인 정착민들을 위한 결혼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기관이라 판단해 쿠랄 신부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만약 당신의 시설에 머물면서 올바른 길로 돌아온 소녀 중에 과거의 잘못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한 가정에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군 부대와 다른 마을에 거주하기 시작한 식민지 주민 중에서 당신이 남편으로 지명해 줄 사람들을 그녀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이번 기회를 효과적으로 장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²⁷⁾

쿠랄 신부는 이 제안에 매우 만족하였다. 그는 젊은 여성들이 알제리에 도착하면 예비 신랑이 구혼하기 전에 수녀들이 알제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종교 시설에 맡겨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1842년 8월 29일에

“두 시설을 통해 몇 명의 여성이 아니라 수백 명의 여성을 약속한다”라고 답장하면서 젊은 여성들의 결혼 이주를 준비했다.

뷔조는 신부의 편지에 바로 응답하지 않았다. 툴롱의 ‘공개 결혼식’ 사건으로 인해 언론으로부터 심한 조롱을 당했고, 전쟁부 장관 솔트^{Soult}가 결혼식을 심각하게 비난했기에 자신의 계획에 자신감을 상실한 상태였다. 여전히 군사 식민지화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1845년 봄, 쿠랄 신부와 다시 접촉하였다. 1845년 5월 7일, 쿠랄 신부는 회개한 소녀들을 알제리로 이송하기 위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알제리에 한 곳, 프랑스에 여러 곳을 같은 종교 법인 소속 아래 두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 그들이 과거의 열락을 지웠다는 충분한 보증을 할 수 있다면 아프리카로 보내질 것이며, 항상 그녀들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여러 수녀의 지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알제리에 도착한 어린 여성들은 즉시 식민지 수녀원으로 옮겨져 같은 수녀원의 수녀들 지도로 기독교인, 아내, 어머니로서의 훈련을 마칠 것입니다.”²⁸⁾

이상과 같은 서신 교환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주도한 결혼 이주계획은 실행되지 않았다. 먼저, 이주와 정착, 결혼비용을 둘러싸고 뷔조와 쿠랄 신부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또한, 두 사람이 가진 각각의 목표가 너무나 달랐다. 뷔조에게는 식민지 주민들을 위한 배우자를 빨리 찾는 것이 절실했고, 쿠랄에게는 수많은 여성을 ‘구원’하는 것이 중요했다. 쿠랄 신부는 군사 식민지화 계획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자 재정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해, 뷔조의 제안에 더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구호소의 여성들을 알제리로 이주시킨다는 계획은 포기되었고 다시는 재개되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군사 식민지 개발을 목적으로 뷔조가 세운 이주계획의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알제리에 도착한 이주민들 낮은 기후, 토양, 생활환경 등에 적응하지 못했고 사망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식민정부의 미약한 물질적, 재정적 지원으로 말미암아 정착을 포기한 다수의 이주자가 프랑스로 돌아갔다.²⁹⁾

한편, 19세기 말 프랑스에서는 알제리를 포함한 해외 영토로의 ‘여성 이주 협회(société d’émigration féminine)’가 조직되었다. 이러한 단체는 파리에서 민간 주도로 만들어졌는데, 그 성격과 목표가 정부가 추진한 이주장려 정책과는 양상이 달랐다. 단체의 창립 목적은 프랑스 국내에서 점점 더 많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식민지에서 직업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레클레르(L’Éclair)』 신문이 “농부와 상업에 종사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뉴칼레도니아로, 요리사와 객실 청소부는 튀니지로, 조산사와 간호사는 알제리로 떠났다”³⁰⁾라며 여성 이주의 증가를 선전했지만, 실제로 지원자는 거의 없었고 제공된 일자리는 그 수가 적어서 지원자에 미치지 못했다. 20세기 초까지 이주를 희망하는 여성은 알제리보다 유럽 여성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았던 다른 지역을 선호했다. 원주민의 저항을 봉쇄하기 위한 알제리 정복 전쟁은 길고도 지루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전시 상황이 지속하면서 가부장적 문화가 지배하는 가운데 여성의 권리와 지위는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이주를 계획한 프랑스 여성들에게 매력적인 목적지가 될 수 없었다. 1870년까지 알제리는 군부가 통치하고, 군대가 상시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군사적 질서는 민간 질서보다 사회적으로 여성을 위한 공간을 협소하게 만들었다. 또한, 일부다처제가 허용되고 여성이 아버지, 형제 또는 남편의 모든 권위에 복종하고, 여성을 위한 공간으로 오로지 가정만이 허용되는 무슬림 문명이 지배하는 알제리에서 유럽계 여성 이주자는 유럽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식민자로 거듭났다.

결국, 알제리로의 여성 이주 캠페인을 조직할 때마다 알제리로 떠난 여성의 수는 항상 여론에서 조롱을 받으며,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다. 툴롱에서 이주한 17명의 신부와 이주 단체가 유치한 극소수의 여성만이 국가가 추진한 계획에 따라 지원을 받으며 이주했을 뿐이었다.

알제리로의 프랑스 여성 이주자는 남성과 동일한 이주 지원을 받았다. 정부의 이주정책에서 국적은 성별보다 우선하는 요소였는데, 토지 개발을 목표로 농촌 식민지화를 추진하던 식민 국가는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이주한

스페인, 이탈리아, 몰타 여성은 여행과 정착 과정에 지원하지 않았다. 이주 비용과 주택에 대한 국가 지원은 농촌 및 해안지역 식민화에 조직적으로 동원된 프랑스인에게만 제공되었다.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지만, 프랑스 남성과 여성 이주자는 국가의 지원이나 개입 없이 자발적으로 알제리로 이주하기도 했다. 1870년 이후 프랑스계, 유럽계 정착민의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이끈 요인은 이주와 인구의 높은 자연 증가율이었다. 1911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알제리에서 137,746명의 스페인인, 36,795명의 이탈리아인, 492,660명의 프랑스인이 용광로_{melting-pot}를 형성해 유럽계 정주민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인구의 압도적 다수는 4,740,000명의 무슬림 원주민이었다.

프랑스가 아닌 지중해 이민의 결과

19세기 대이주의 시대 유럽에서 발생한 알제리로의 이주와 대서양 횡단 이주는 거의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 아메리카 대륙이 아닌 북아프리카로 떠나는 이주자들의 선택을 이끈 것은 프랑스 국가의 정책이었다.

원주민이 보유했던 공유지에 대한 유럽계 정착민의 사유화, 경제 대공황으로 인한 산업의 위기, 도시와 농촌의 인구 과잉은 유럽인들이 지중해를 건너게 만든 주요 원인이었다. 1848년 혁명에 참여했거나, 나폴레옹 3세의 쿠데타에 반대해 정치적 유배형을 받은 사람들이 식민지로 이송되기도 했으나 그 수는 매우 적었다. 게다가 뷔조 장군의 ‘군사 식민지’ 역시 야심에 찬 계획과 비교하면 건설된 마을은 100여 곳에 불과했고 유지되지도 못했다.

프랑스 정부와 식민지 정부가 주도한 이주계획이 실패한 가운데 알제리 정주민 사회의 다수는 비프랑스계 유럽인이었다. 식민지 알제리에서 프랑스 만들기는 유럽계 정주민의 프랑스인화를 의미했다고 볼 수 있다. 알제리가

남유럽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은 유럽계 이주민들이 알제리를 선택한 주요 원인이었다. 이탈리아 남부, 스페인, 몰타 또는 기타 섬에서 여객선 또는 작은 어선을 타고 이동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단 몇 프랑에 불과했다. 또한, 프랑스에서 알제를 향하거나 뉴욕을 향하는 여객선 삼등석 가격은 비슷했지만, 이주 희망자에 대한 정착 지원, 토지 분배, 안정적이면서도 편리한 귀국 전망 때문에 많은 남유럽 이주자가 알제리를 향했다.

지중해를 건너 이민자들은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이주자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들의 소식은 가족, 친구나 이웃에게 빠르게 전달되었는데, 오랑에는 스페인계, 콘스탄틴에는 이탈리아계, 본과 알제 교외에는 메르노카 섬 출신의 마호네^{Mahonnais} 등이 각각의 이민자 공동체를 형성해 알제리 식민지 사회는 매우 이질적이고 혼성적인 상태로 남아 있었다. 또한, 농촌 개발을 의욕적으로 추진한 식민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프랑스 정착민들은 농촌보다 도시를 선호하는 임금 노동자들이 다수였다. 스페인, 이탈리아 및 지중해의 다른 지역에서 새로 도착한 유럽계 정착민들도 도시로 몰려들어 소규모 기업가나 상점 주인으로 일했다. 알제리에서 선량한 농부들이 되지 못한 것은 정착민들이 기후 변화와 낮은 토양의 특성으로 인해 농업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19세기 후반, 세계 시장에서 미국산 곡물과 아시아산 곡물의 유통이 증가하면서 프랑스 식민모국 시장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제리의 농산물 수출에는 악영향을 미쳐 농업 발전을 저해했다.

결국,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알제리 식민화에 필수적이었던 정착민 사회 건설을 위한 지중해 양안의 메트로폴리스 정부와 식민지 정부의 노력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고, 자신들이 계획한 데로 이주자를 유입하고 통제하는데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정착민 사회 건설을 통한 알제리의 프랑사회는 지중해 지역 이민자들의 다양한 실천의 산물이었다.

〈원문출처〉

이 글은 다음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다.

문종현, 「알제리 식민화와 프랑스의 이주정책(1830~1889) - 프랑스 만들기와 이주 -」 『서양사론』 157, 한국서양사학회, 2023.

〈저자소개〉

문 종 현 (세종대학교 대양휴머니티 칼리지 초빙교수)

저자 문종현은 한양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 7대학에서 프랑스 근현대사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20세기 초 프랑스의 반아시아인 인종주의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세종대학교 대양휴머니티 칼리지 초빙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프랑스 인종주의, 식민주의 역사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반인종주의 운동과 교육에 관심을 두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흑인법의 식민지성」, 「알제리 전쟁과 프랑스 정주민」, 「68년 이후의 68운동」, 「68운동과 마오주의」 등이 있다.